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05.21 (통권400호)



경제이슈

그리스 발 금융위기 증폭
가계소득 증가세 지속

경영노트

리더가 가진 권력의 원천

사회 트렌드

헬프족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

저널 브리프

성공한 CEO의 공통점

洗心錄

무작위성에 대한 오해

□ 그리스 발 금융위기 증폭

- 그리스는 16일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고, 유로존 퇴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등 위기가 확대
 - 유동성 공급 중단 : 최근 총선 결과 재정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이 부상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4개 은행에 유동성 공급 중단
 - 신용등급하락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하향 조정
 - 예금인출 사태 :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리스 시중은행에서 지난 14일 하루만에 7억 유로(1조 360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뱅크런 사태 발생

- 오는 6월 17일로 예정된 2차 총선 결과에 따라 그리스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며, 만약 좌파 정부가 구성될 경우 긴축안 반대와 디폴트 가능성 증대로 그리스 발 금융위기가 유럽과 전 세계로 확대될 우려

□ 가계소득 증가세 지속

-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1/4분기 가계소득은 가계지출보다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가계의 살림살이는 다소 개선됨
 - 소득 : 취업자 증가로 인한 고용 개선으로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2.4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3.8%증가
 - 소비지출 : 식료품과 주거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6.8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
 - 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료가 모두 크게 늘어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한 79만 원을 기록

- 1/4분기 가계의 형편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대외불안요인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서민가계의 소득과 분배상황이 악화될 우려

□ 리더가 지닌 권력의 원천¹⁾

- 경영자가 리더십 발휘에 실패할 경우 감시 비용의 증대, 전략적 사고의 부재, 부하들의 역량 개발 기회 부족 등의 부작용 발생을 감수해야 함
 -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통해 자발적 추종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조직이나 부서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 분류
 - 직급이 올라가면서 달라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리더십의 초점을 자발적 추종에서 목표 달성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음
- 리더로서 부하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 원천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됨

< 권력의 다섯 가지 원천 >

종류	내 용
강압적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제재나 처벌 혹은 부정적인 결과 등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의미 · 부하들의 저항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으나 위기 발생 시나 악습 타파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
합법적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압적 권력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인식됨 ·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자발적 추종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
보상적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이나 승진 등의 보상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해당 · 물질적 보상에 익숙해지면 혜택보다 없음으로써 생기는 박탈감 및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전문적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정보 등을 부하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 혁신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리더의 지적 역량이 뛰어나고 이를 부하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자발적 추종을 유도할 수 있음
준거적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의 개인적인 매력과 존경심 등을 바탕으로 한 준거적 권력은 부하들의 헌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권력의 원천 · 지식이나 노하우는 업무나 환경이 바뀌면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으나 개인적 특성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지는 성질이 아님

1) 본 자료는 동아비즈니스리뷰의 ‘직원의 존경과 사랑은 리더십의 궁극적 목적 아니다 (2012년 4월)’과 ‘강압 or 설득: 리더인 당신은 어떤 힘을 쓸 것인가(2012년 5월)’를 요약정리함

:: 사회 트렌드

□ 헬프족²⁾

- 건강을 위해 고급 식료품에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소비자인 ‘헬프 (Healp, Healthy + premium food)족’이 늘어나고 있음
 - 웰빙을 넘어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고급 식료품 선호 현상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임
- 고급 소금으로 알려진 천일염, 첨가 성분을 최소화한 고급 조미료, ‘자연재료 조미료, 유기농 제품 등이 그 예들임
 - 다만 일각에서는 유기농 또는 프리미엄을 앞세워 식료품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³⁾

- 오는 6월 23일 오후 7시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섬
 - 지난 1948년 건국 당시 2,000만 명 수준에서 64년 만에 3,0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4,000만 명 돌파 이후 28년 만임
- 인구는 1968년 3,000만 명을 넘어선 후 4,000만 명(1984년)까지 16년이 걸렸지만 출생률 감소로 5,000만 명까지는 28년이 걸림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1.24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인구 감소가 본격화함
 - 1925년(최초 인구센서스) 1,902만 명, 1930년 2,000만 명 돌파, 1949년(건국 직후) 2,019만 명, 1968년 3,000만 명, 1984년 4,000만 명, 2012년 5,000만 명 돌파, 2030년(인구추계 정점) 5,216만 명
- 전문가들은 5000만 명을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 분기점에 놓일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미래를 서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음을 의미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소비 패턴 변화로 산업지도도 흔들릴 것임

2) “헬프족이 뜬다”(서울경제신문, 2012.5.21)

3)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 찍는다”(서울경제경제, 2012.5.21)

□ 성공한 CEO의 공통점⁴⁾

■ 성공한 CEO들의 철학·습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존재

① 무엇을 할 지를 정하라

-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고 정하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할 것
-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은 경쟁을 심화시키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조직원들 간 협력을 유도해 조직 전체의 성장이 가능

② 목표는 최고로, 계획은 비관적으로 세워라

- 조직의 목표는 높게 잡되,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울 것
-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따르면 성공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CEO들의 성공비결임

③ 성공사례를 찾아 활용하라

-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보다는 우선 현재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무엇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 성공사례 탐색 및 성공사례 간 공통점 도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통점을 모방하고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④ ‘6개월 룰’을 기억하고 도전하라

- 현재의 안전지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태도를 가질 것
- 성공한 CEO들은 6개월만 지나면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도, 위험한 지역에도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

⑤ 끈기있게 한 우물을 파라

- 한 직장에서 3년은 기본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고 5년은 성과를 내는 최소 기간이므로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장기간 몸담을 것
- 성공한 CEO의 경우 전직·이직한 경험은 있으나 횟수는 많지 않으며, 특히 입사 후 5년 안에 그만둔 이력을 가진 경우는 매우 드뭄

⑥ 철저하게 준비하라

- 불운이든 행운이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이중 삼중으로 철저히 대비할 것
-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세운 사람과, 준비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싸우면 어느 쪽이 승리할 지는 자명한 사실

4) ‘남다른 ’6가지 철학‘ 성공 경영 밑거름’(한겨레, 2012.05.15) 참조

□ 무작위성에 대한 오해

한 병원에서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이 아이들의 성별을 순서대로 표시한 예가 다음 두 가지 있다고 하자.

1. 여여여여여여
2. 남여남남여남

자 그럼, 두 예시 중 어떤 순서로 아기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더 낮을까? 이 질문에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대답은 아마도 ‘첫 번째’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번째’는 정답이 아니다. 남아와 여아가 태어나는 사건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확률적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어떤 6차례의 출생 순서가 나올 가능성은 모두 비슷하다. 쉽게 말해 두 가지 확률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가 의심스러울 것이다. 두 번째의 예가 무작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확률이 높은 것처럼 느껴진다. 더군다나 6명의 여아들이 연속해서 태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여겨진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무작위(우연)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무작위성에 대한 오해는 역으로, 엉뚱한 상상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선수들이 가끔씩 발동이 걸리는 때가 있다고 믿는다. 팬들 뿐 아니라 선수, 감독조차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농구에서 한 선수가 3-4회 연속해서 골을 넣으면 그 선수가 그 날 발동이 걸렸다고 믿고, 그에게 좀 더 많은 패스를 시도한다. 그러나 수천 차례의 샷을 분석한 결과 ‘발동 걸린 선수’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발동은 순전히 보는 사람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규칙적인 패턴을 찾고 심지어 인과관계를 통해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들 중 많은 부분이 때로는 우연(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 우연히 발생한 일들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 또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지혜이다.